

제9장

## 한국 근대유학 연구

이원준(성균관대학교)

##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근대 유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학문별, 주제별로 종합 및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성과의 범위는 19세기 중반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활동한 유학자들의 사상과 해당 시기의 유학 관련 담론을 주제로 한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발표논문 및 철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는 총 54편의 학술지 논문이다. 연구성 과들을 계과적 측면에서 분류할 경우 성리학 논문이 35편,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 관련 논문이 19편으로, 성리학 분야의 연구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리학 연구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리학 연구성과를 노사학과, 간재학과, 화서학과 등 근대시기의 주요 성리학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특기할 점은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 1818~1886)을 포함한 한주학과 연구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이다.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의 경우 양명학이나 한국실학 등 특정 사상체계로 분류하기에는 개별 논문의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학문별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의 경우 특정 인물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 근대유학을 조명한 경우와 특정 인물을 경유하지 않고 근대시기 유학사상의 변천을 다룬 경우로 나누어 각각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학 관련 담론”이라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 총 다섯가지의 분류틀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전통유학의 심화”의 측면에서 한국 근대유학 연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한국유학 전통에서 이어지는 유학사상의 전개 및 심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분류틀은 “전통유학의 변동”으로, 시대 속에서 전통 유학에 대한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으로도 근대유학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 가치의 상실과 국권피탈에 대응하는 저항 담론의 기초로서 유학사상이 점유하는 지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밖

에도 “근대학문으로서의 유학” 과 “종교로서의 유학” 이라는 틀로도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 근대적 학문방법론과 종교의 일환으로서 유학사상이 분석 또는 이해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물론 상술한 주제들이 연계된 경우 또는 상술한 주제들과 무관한 연구성과 역시 발표된 만큼, 상술한 주제들과 거리가 멀거나 여러 주제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성과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2. 학과별 분류

### 1) 성리학

근대 한국유학 연구성과 가운데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38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간재학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13편, 노사학과를 주제로 한 연구가 12편 발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화서학과를 다룬 연구성과가 4편 발표되었다. 반면, 작년에는 간재학과 및 노사학과를 뒤이어 가장 많은 7편의 연구성과가 발표된 한주학과의 경우 1/3 가량 줄어든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 (1) 간재학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보승	간재 전우의 수양론에 관한 소고 - 성사심제에 기반한 경(敬)의 실천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2	길태은	근대 이행기 유학자의 현실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 간재 전우의 위정적사(衛正斥邪)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3	박학래	良齋 田愚의 유학사적 위상과 그 영향	을곡학연구 50	(사)을곡학회
4	신요한	重菴 金平默 門人과 良齋 田愚의 심설논쟁 양상	漢文古典研究 45	한국한문고전학회
5	이향준	지친 성리학적 사유의 기율 - 전우(田愚)와 외필논쟁(猥筆論爭)-	범한철학 106	범한철학회
6	정경훈	良齋 田愚의 『檢本』에 대한 일고	동방한문학 90	동방한문학회
7	정도원	간재 전우의 心說과 理氣論 -사상사적 배경과 心氣 이해를 중심으로-	우계학보 43	(재)우계문화재단
8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9	김낙진	전우의 문인 홍사철의 심설 -곽종석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천승	금재 최병심을 통해 본 간재문집 간행의 갈등양상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정경훈	艮齋 田愚의 저서 간행 상황과 문제점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2	정도원	『白山旨訣』과 綱齋 金永燮의 간재학 계승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3	진성수	裕齋 宋基晁의 義理思想- 「妄言」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3	동방한문학회

간재학과를 주제로 한 연구 중 절반 이상인 7편의 논문이 학과의 종장인 간재 본인의 사상을 다루었으며, 여기서도 절반이 넘는 4편의 논문(신요한, 이향준, 정경훈, 정도원)이 간재가 참여한 구한말 성리학 논변인 ‘심설논변(心說論辨)’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간재의 수양론과 현실대응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나아가 그가 당대 유학계에서 점유하는 지위를 살펴본 논문도 발표되었다. 간재 후학들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의 경우 문집 간행을 매개로 간재 사상을 계승하고자 했던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을 주제로 한 논문이 2편(김근호, 정경훈) 있으며, 그 밖에는 중복되는 인원 없이 간재 후학들의 간재 사상 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 (2) 노사학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다진	기정진 경학(經學)의 특징적 양상에 관한 검토 -경전에 대한 인식과 공부를 중심으로-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2	배제성	인물성등이논쟁을 통해 본 노사(蘆沙)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쟁점과 함의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3	박학래	기정진 이기설에 대한 노사학과 문인들의 계승 의식에 관한 검토 - 답문류편(答問類編) 「논도체(論道體)」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4	김성희	老柏軒 鄭載奎의 독서법 유형과 그 지향	南冥學研究 73	경남문화연구원
5	서영이	을계(栗溪) 정기(鄭琦)의 체용불이(體用不二)의 사유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6	양순자	명호 권운환(明湖 權雲煥)의 성리학적 사유 - 「납량사(納涼私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7	(사)율곡학회
7	이향준	기우승(奇宇承)의 「외필문목(猥筆問目)」 비판 - 「박외필문목변(駁猥筆問目辨)」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7	(사)율곡학회
8	이향준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한국 철 학 논 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9	이형성	순창지역의 蘆沙學派 門人 조사와 계승성 一致	동양문화연구 36	동양문화연구원
10	정상업	석음 박노술의 시대인식과 항일행적	남도문화연구 45	남도문화연구소
11	조우진	難窩 吳繼洙의 성리설과 실천적 의리정신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12	조우진	남파(南坡) 이희서(李僖錫)의 역학적 사유와 현실 인식	범한철학 107	범한철학회

노사학과 관련 연구성과는 예년과 비슷한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간재학파에 대한 연구 동향과 상반되게, 노사학과를 다룬 연구 가운데 노사 본인의 성리설을 다룬 논문은 박다진, 배제성의 논문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노사학과에 대한 연구 중 특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학파의 전반적인 계승 양상을 고찰한 박학래의 논문을 제외하면 노사 문인 개인의 노사 학설 계승양상 또는 현실 대응을 다루었으며, 각각의 논문들에서 주제로 다룬 인물이 중복되지 않아 다양한 인물들이 발굴 또는 재론되었다. 이형성의 논문은 표제상으로는 순창지역 노사학과 일반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노사학 계승 양상에 대해서 논하였다. 최근 19세기 성리학의 전개 양상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는 이향준의 연구는 모두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노사 문인의 저작을 학계에 소개하였다.

### (3) 화서학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유경	이항로의 주리론적 성리학 특징 고찰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김경화	화서 이항로의 「효열부문씨전」 고찰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3	배제성	화서 이항로의 선악관과 역사의식 -역사적 주제 형성의 성리학적 기회-	철학 150	한국철학회
4	신요한	重菴 金平默 門人과 良齋 田愚의 심설논쟁 양상	漢古典研究 45	한국한문고전학회
5	이향준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학회

화서 및 화서학과를 다룬 연구성과는 총 5편의 논문이 있다. 화서학파의

종장인 이항로 개인의 사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3편, 화서학과와 타 학파의 사상을 비교한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화서학파의 사상을 타 학파와 비교한 2편의 논문들은 모두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화서학파 문인들의 자료를 소개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각 학파의 입장을 살펴본 것들이다.

#### (4) 한주학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낙진	이진상 심즉리설의 함의와 목적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2	김낙진	河謙鎭 心無對說의 의미	南冥學研究 76	경남문화연구원
3	김종석	한말 영남지역 심설논쟁 관련 기초자료 검토 - 1902년 도산서원 삼봉서당 간의 통문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88	한국학연구원

예년에 비해 한주학파를 주제로 발표된 연구성과가 절반 이하로 감소된 3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 김낙진은 한주 본인을 주제로 한 연구와 하겸진(河謙鎭, 1870~1946)을 주제로 한 연구를 각각 1편씩 발표하였는데, 두 논문에서는 한주 계열의 심(心) 중심의 사유가 조선 후기 위정척사 및 저항정신의 원류로 작용했다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도 한주의 문집을 둘러싼 안동의 유림과 한주학파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논쟁 과정을 다룬 연구 역시 1편 발표되었다.

#### (5)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오영	김대진(金岱鎭)의 학통(學統)과 이학(理學)	청계사학 24	청계사학회
2	김경호	한 시골 유학자의 죽음 - 농산 신득구의 철학사상과 삶의 지향 -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3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4	이상익	조선 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퇴계학보 151	퇴계학연구원

상술한 학과 분류에 속하지 않은 성리학 연구로는 4편의 학술논문이 있

다. 권오영의 논문은 김대진(金岱鎭, 1800~1871)의 학통이 영남 퇴계학파의 적통인 김성일(金誠一, 1538~1593) - 이현일(李玄逸, 1627~1704) - 이상정(李象靖, 1711~1781) 계열임을 논증하였고, 김경호와 유지웅의 논문은 기호학맥에 속하는 유학자이지만 앞서 살펴본 학파로는 분류되지 않는 인물인 신득구(申得求, 1850~1900)의 사상을 다루었다. 이상익의 논문은 근대시기에 전개된 성리학 논쟁인 ‘심설논쟁(心說論爭)’의 성격을 분석하고 해당 논쟁이 당대 사회에 가졌던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 2) 성리학 바깥의 한국 근대유학 ① : 인물을 경유한 경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48	(사)울곡학회
2	정성희	20세기 초 유교 종교화의 논리와 유교사적 의의 - 박은식(朴殷植)과 장지연(張志淵)의 경우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3	이영숙	小訥 盧相稷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4	이준규	소설 노상직의 서당교육과 서당교육자료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소설문고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2	동양한문학회
5	김영건	해창(海窓) 송기식(宋基植)의 사상과 교육관 - 해창집과 유교유신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6	이현정	송기식 『유교유신론』의 집필 계기와 ‘유교청년’ 기획	한국사상사학 70	한국사상사학회
7	김미영	장지연 유학사상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연속과 단절	민족문화연구 96	민족문화연구원
8	김운경	1930년대 조선학 운동가들의 ‘실’담론과 ‘실학’개념의 형성   - 정인보의 ‘조선학’과 ‘실사구시의학’을 중심으로 -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9	김운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I)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 유학 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왕우	월남 이상재의 유교적 思维의 전환 재조명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11	하운서	남궁역(南宮穉)의 가족치유(家族治癒) 연구 -家庭教育의 맹아적(萌芽的) 의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30	영남퇴계학연구원

한국 근대유학 연구 중 성리학 분야를 제외한 19편의 논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편의 논문이 특정 인물의 사유에서 확인되는 근대 유학의 각종 면모를 확인하였다. 인물별로는 박은식(朴殷植, 1859~1925) 2편(김우형, 정성

회), 노상직(盧相稷, 1855~1931) 2편(이영숙, 이준규), 송기식(宋基植, 1878~1949) 2편(김영건, 이현정), 장지연(張志淵, 1864~1921) 2편(정성희, 김미영), 정인보(鄭寅普, 1892~?) 2편(김우형, 김윤경)이 있다. 이 중 박은식을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박은식을 단독으로 다루지 않고 동시기 사상가와 함께 다룬 점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도 설태희, 이상재, 남궁억을 주제로 한 한국 근대유학 연구가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상술한 논문들은 근대라는 격동의 시기에 해당 인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유학사상을 다루는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중 유학전통의 수호를 다룬 연구는 근기 남인계 실학 전통을 이은 노상직을 주제로 한 두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통적 유학사상에 대한 변혁 또는 탈피를 다루었다.

### 3) 성리학 바깥의 한국 근대유학② : 인물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 호 김용재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 '道統'과 '實心'의 관점에서 -	양명학 64	한국양명학회
2	엄진성	근대 선비 지식인과 종교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3	이행훈	일제강점기 종교 담론의 유형과 전개	개념과 소통 30	한림과학원
4	서육수	전환시대의 평민유교 II - 박경리 『토지』 서회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의 메카니즘 -	한국민족문화 8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	박태욱	'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사상에 나타난 유교지식인의 공(公)·사(私) 관념	인문과 예술 13	인문예술학회
6	문경득	'조선유학'과 '조선유교' 표현의 개념사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7	장순순	일제강점기 실학자 저작의 출간과 조선학운동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8	김우형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연구의 양상 - 연구 주체의 성격과 조선유학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5	중앙철학연구소

성리학 이외의 한국 근대유학을 다룬 논문 가운데 8편의 논문은 특정 인물의 사유를 경유하지 않고 당대의 유학사상의 전개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 3. 주제별 분류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①전통유학의 심화, ②전통유학의 변동, ③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 ④근대학문으로서의 유학, ⑤종교로서의 유학이라는 다섯 가지 분류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근대 한국 유학의 주류 사상이 성리학이었던 만큼 “전통유학의 심화”와 “전통유학의 변동”은 사실상 “성리학의 심화”와 “성리학의 변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까닭에 앞서 살펴본 성리학 관련 논문의 절대다수는 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33편의 성리학 논문을 ①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논문의 경우 ②와 관련된 논문이 6편, ③, ④, ⑤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각각 4편씩 있다. 상술한 기준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3편의 논문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1) 전통유학의 심화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보승	간재 전우의 수양론에 관한 소고 - 성사심제에 기반한 경(敬)의 실천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2	길태은	근대 이행기 유학자의 현실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 간재 전우의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3	박학래	良齋 田愚의 유학사적 위상과 그 영향	을곡학연구 50	(사)을곡학회
4	신요한	重菴 金平默 門人과 良齋 田愚의 심설논쟁 양상	漢文古典研究 45	한국한문고전학회
5	이향준	지친 성리학적 사유의 기율 - 전우(田愚)와 외필논쟁(猿筆論爭) -	범한철학 106	범한철학회
6	정경훈	良齋 田愚의 『檢本』에 대한 일고	동방한문학 90	동방한문학회
7	정도원	간재 전우의 心說과 理氣論 - 사상사적 배경과 心氣 이해를 중심으로 -	우계학보 43	(재) 우계문화재단
8	김근호	후창 김택술(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9	김낙진	전우의 문인 홍사철의 심설 - 광중석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이천승	금재 최병심을 통해 본 간재문집 간행의 갈등양상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정경훈	良齋 田愚의 저서 간행 상황과 문제점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2	정도원	『曰山旨訣』과 綱齋 金永燮의 간재학 계승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13	박다진	기정진 경학(經學)의 특징적 양상에 관한 검토 - 경전에 대한 인식과 공부를 중심으로 -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14	배제성	인물성동이논쟁을 통해 본 노사(蘆沙)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쟁점과 함의	동양철학 57	한국동양철학회
15	박학래	기정진 이기설에 대한 노사학과 문인들의 계승의식에 관한 검토 - 답문류편(答問類編) 「논도체(論道體)」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16	김성희	老柏軒 鄭載圭의 독서법 유형과 그 지향	南冥學研究 73	경남문화연구원
17	서영이	을계(栗溪) 정기(鄭琦)의 체용불이(體用不二)의 사유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18	양순자	명호 권운환(明湖 權雲煥)의 성리학적 사유 - 「남량사의(納涼私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울곡학연구 47	(사)울곡학회
19	이향준	기우승(奇宇承)의 「외필문목(猥筆問目)」 비판 - 「박외필문목번(駁猥筆問目辨)」을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47	(사)울곡학회
20	이향준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 -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2	한국철학사연구회
21	이형성	순창지역의 蘆沙學派 門人 조사와 계승성 - 攷	동양문화연구 36	동양문화연구원
22	조우진	難窩 吳繼洙의 성리설과 실천적 의리정신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23	조우진	남파(南坡) 이희석(李僖錫)의 역학적 사유와 현실 인식	범한철학 107	범한철학회
24	안우경	이항로의 주리론적 성리학 특징 고찰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25	김경화	화서 이항로의 「효열부문씨전」 고찰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26	배제성	화서 이항로의 선악관과 역사의식 -역사적 주제 형성의 성리학적 기획-	철학 150	한국철학회
27	김낙진	이진상 심즉리설의 함의와 목적	동방학 47	동양고전연구소
28	김낙진	河謙鑰 心無對說의 의미	南冥學研究 76	경남문화연구원
29	김종서	한말 영남지역 심설논쟁 관련 기초자료 검토 - 1902년 도산서원 삼봉서당 간의 통문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88	한국학연구원
30	권오영	김대진(金岱鎭)의 학통(學統)과 이학(理學)	청계사학 24	청계사학회
31	김경호	한 시골 유학자의 죽음 - 농산 신득구의 철학사상과 삶의 지향-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32	유지웅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천설(天說)의 학계 평가와 실천적 해석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33	이상익	조선 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	퇴계학보 151	퇴계학연구원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 33편은 전근대 학문 전통에 기반한 당대 지식인들의 유학사상을 주로 다루었다. 상술한 연구성과 중 적지 않은 수의 연구에서 근대를 조우한 성리학자들의 현실 인식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양상보다는 해당 학자의 사유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전통유학의 변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 진아(眞我)론과 실심(實心)론의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을곡학연구 48	(사)을곡학회
2	김영건	해창(海窓) 송기식(宋基植)의 사상과 교육관 - 해창집과 유교유신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86	동양고전학회
3	이현정	송기식 『유교유신론』의 집필 계기와 '유교청년' 기획	한국사상사학 70	한국사상사학회
4	김미영	장지연 유학사상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연속과 단절	민족문화연구 96	민족문화연구원
5	이왕무	월남 이상재의 유교적 思维的 전환 재조명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6	하운서	남궁역(南宮億)의 가족치유(家族治癒) 연구 -家庭教育의 맹아적(萌芽的) 의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30	영남퇴계학연구원

성리학 바깥의 근대 유학자들을 다룬 논문 11편 가운데 6편은 “전통유학의 변동”을 다룬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박은식과 정인보 등 양명학을 수용하였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다룬 김우형의 논문은 진아론과 실심론 등의 관념을 양명학의 맥락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현대 한국철학의 형성의 측면에서 조명한 관계로 “전통유학의 심화”라기보다는 “전통유학의 변동”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유학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이상재를 주제로 한 이왕무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학사상이 근대라는 공간을 경유하여 전통사상과 대비되는 “근대 한국철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 3)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진성수	裕齋 宋基冕의 義理想- 「妄言」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93	동방한문학회
2	정상엽	석음 박노술의 시대인식과 항일행적	남도문화연구 45	남도문화연구소
3	이영숙	小訥 盧相稷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4	이준규	소놀 노상직의 서당교육과 서당교육자료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소놀문고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2	동양한문학회

전통적 유학사상이 근현대 공간에서 점유했던 지위 중 하나인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 을 고찰한 논문은 총 4편이다. 이 중 진성수의 논문은 간재학파인 송기면(宋基冕, 1882~1956)의 성리학적 의리정신이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저항 담론의 기저로 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정상엽의 논문은 노사학파인 박노술(朴魯述, 1851~1917)의 항일행적을 그의 사상과 결부하여 논의하였다. 노상직을 주제로 한 두 편의 논문은 전통 유학사상을 유지하고자한 그의 방식이 일종의 저항적 의식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 4) 근대 학문으로서의 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우형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연구의 양상 - 연구 주체의 성격과 조선유학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5	중앙철학연구소
2	김윤경	1930년대 조선학 운동가들의 '실'담론과 '실학' 개념의 형성 I - 정인보의 '조선학'과 '실사구시의학'을 중심으로 -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3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I)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 유학 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학회
4	장순순	일제강점기 실학자 저작의 출간과 조선학운동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유학사상을 근대적인 학문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양상과 관련된 논문은 총 4편으로, 대체적으로 한국의 전근대 유학사상이 근대 학자들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 및 연구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 중 김윤경의 논문 1편과 장순순의 논문은 조선후기 살용적 학문사조로 평가받는 ‘실학’의 탄생 과정을 분석하였고, 김우형의 논문은 일제강점기 학계에서 조선유학에 대해 지니는 입장을 전통적 방법론에 입각한 ‘전통 유학적 주체’와 전통을 부정하는 ‘근대 주체’, 조선유학을 근대 한국철학의 일환으로 전환하고자 한 ‘현대 주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태희를 주제로 한 김윤경의 논문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 연구의 비판 양상을 통해 근대 한국학자의 조선유학 이해방식의 일면을 밝혔다.

## 5) 종교로서의 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문경득	‘조선유학’과 ‘조선유교’ 표현의 개념사	역사연구 43	역사학연구소
2	엄진성	근대 선비 지식인과 종교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3	이행훈	일제강점기 종교 담론의 유형과 전개	개념과 소통 30	한림과학원
4	정성희	20세기 초 유교 종교화의 논리와 유교사적 의의 - 박은식(朴殷植)과 장지연(張志淵)의 경우 -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종교로서의 유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총 4편으로,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한 ‘종교’를 필요로 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유학사상을 이용하는 각종 양태를 살펴본 엄진성의 논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전통 유학이 서양적인 종교(religion)와 유사한 형태로서의 유교(儒敎)로 이해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 호 김용재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 ‘道統’과 ‘實心’의 관점에서 -	양명학 64	한국양명학회
2	박태옥	‘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사상에 나타난 유교지식인의 공(公)·사(私) 관념	인문과 예술 13	인문예술학회
3	서옥수	전환시대의 평민유교 II - 박경리 『토지』 서회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의 메카니즘 -	한국민족문화 8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상술한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성과는 총 3편이다. 김호/김용재의 논문은 근대 유학사상계의 움직임을 ‘주자학적 道統’과 ‘주체적 實心’을 강조했던 유자들의 행보로 나누어 전자에 치중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시대에 뒤쳐졌음에도 현실을 외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박태옥의 논문은 ‘위정척사’와 ‘개화’ 모두 전통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한 유사점과 근대 문명에 대한 대립된 태도에서 오는 차이점을 동시에 드러내어 오늘날 공사(公私) 관념의 연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서옥수의 논문은 역사소설 『토지』에서 도리와 배려의 유교적 이념과 영성과 교감의 전통 종교 이념을 융합한 평민 중심의 민족 이념, 즉 ‘평민 유교’의 생성이 확

인된다고 보았다.

####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근대는 서양의 학문과 문물이 범람하듯 유입되던 시기였으나, 동시에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 작업 또한 병행되던 시기였다. 국운이 경각에 달한 격동의 시기에 오히려 전근대 학문이 심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연구성과 가운데 상술한 질문에 대해 대답한 논문이 두 편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호와 김용재의 논문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 ‘道統’ 과 ‘實心’ 의 관점에서 -」는 “19세기 조선의 유자들 중 성리 논쟁에 관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즐비했다고는 하나, 이들 가운데 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날카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던 유자는 누구였는지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215쪽)고 하여 당대의 성리 논쟁의 사회적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지를 전개한다. 이에 저자들은 성리학자인 전우(田愚, 1841~1922)가 성리학적 ‘도통’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의병활동이나 파리장서운동 등의 독립 활동에 비판적이었다면, 양명학에 기반한 주체적 ‘실심’ 을 사상적 기저로 한 까닭에 강화학파에 속하는 유학자 이건승(李建昇, 1858~1924)이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저자들이 당대 성리학계를 박하게 평가하는 원인은, 이들이 양명학의 ‘친민(親民)’ 이 계급과 상관없이 인간의 양지(良知)를 긍정하였던 까닭에 주자학적 ‘신민(新民)’ 에 비해 근대에 조우할 수 있는 추동력이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논문 229~232쪽 참조) 박은식과 정인보 등 근대 유학자들이 양명학에 주목한 점에서 저자의 설명은 일견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도통 전승을 목적으로 전우가 취했던 일부의 행동만으로 당대 성리학이 사상계나 사회에 점유하였던 지위를 예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후술할 이상익의 논문이 주목된다.

이상익의 논문인 「조선 말기 心說論爭의 성격과 의의」는 심설논쟁의 전개

과정을 “ ‘리의 주재자적 성격을 강화하는 이론’ 을 구상한 이항로와 기정진, 이진상의 ‘새로운 주리론(主理論)’ 에 대한 전우의 성사심제(性師心第)에 기초한 대응 및 비판” 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리론’ 이 “타락한 현실에 대한 ‘우환의식의 소산’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타락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서 ‘적실성이 없다’ 는 점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156쪽)고 평가하였다. 저자는 새로운 주리론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①리선기악(理善氣惡)으로 귀결되어 성리학적 이기론의 기본원칙인 ‘형이상자-형이하자’ 구도를 무너뜨린 까닭에 ‘정합적인 이론체계’ 를 정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마음이 주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마음에 대한 명목적 규정을 바꾸기만 한 것에 불과하며, ③ ‘순선한 리가 현실적 기를 마음대로 부린다’ 는 주장이 인간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상술한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는 심설논쟁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리론’ 이 사상사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으며, 오히려 격변하는 시대에 유교계를 분열시키고 동어반복적 논쟁만 지속시켜 성리학을 시대에 뒤쳐진 탁상공론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새로운 주리론’ 을 비판한 전우의 학설에 대해선 “기의 능동적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가치추구의 궁극적 표준으로서의 리를 중시한 성리학의 리주기자론(理主氣資論)” (169쪽)을 계승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우환의식에 앞서 이론적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주장을 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한 ‘새로운 주리론’ 보단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된 전우의 이론이 근대 시공간에서 성리학의 지위를 살펴보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자의 논문은 앞서 살펴본 논문의 논지에 대한 일종의 반론인 셈이다. 다만, 저자는 새로운 주리론의 의의를 “의병 활동에 적극적이고 신문물과 신학문 수용에 능동적이게 된다” 고 보는 것에 대해 “외세 배척에 기초한 의병활동과 서구학문의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가당착적 태도” (166쪽 참조)라고 반론하였는데,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한 것을 논리적 정합성의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 5. 평가와 전망

2021년에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관련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논문의 수량에서도 확인되듯, 한국의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던 관념은 성리학이었다는 점이다. 격동하는 시기에 전통을 고수한 인물들보다는 변혁을 꾀한 인물들이 주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변혁을 기도한 인물이 당대 사상계의 다수를 이루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근대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리학을 제외하고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대 한국유학을 살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 다수였던 성리학자들을 단순히 수구 세력으로 매도하는 작업은 당대의 사상계를 오롯이 평가하기 위해선 지양해야 할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소 빈약하게 진행된 당대 성리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진일보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에 비해 ‘근대학문으로서의 유학’이나 ‘종교로서의 유학’ 등 근대적 학문방법론 또는 서구 종교의 틀에서 전통 유학이 분석되고 이해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다. 적지 않은 수의 연구논문들이 근대라는 격동기 속에서 유학사상이 단순히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의 최신 분석틀로 논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환언하면, 성리학이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근대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리매김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인 셈이다. 전통 유학이 근대 공간에서 점유한 지위를 살펴보는 작업을 위한 분석틀이 예년에 비해 다양해진 점에서, 향후 ‘근대에 놓인 전통유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